

# 대학신문사

## 학내 기관 탐방

• 본고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주간 양승목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학신문사의 조직 구조와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편집국과 업무국이 있습니다. 편집국은 실제로 「대학신문」을 제작하는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취재부·사회부·학술부·문화부·사진부 등 이렇게 다섯 개 부서가 있으며, 각 부서의 부장들 그리고 전체 편집장과 부편집장이 있습니다. 편집국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 후 인쇄소에 넘기면 그곳에서 데이터를 디지털 필름으로 출력하여 인쇄를 해서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에 배포됩니다. 또한 업무국은 예산 집행 등 대학신문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으며, 외부에 있는 광고대행사와의 업무 진행도 맡고 있습니다.

큰 구조에서는 총장이 발행인이시고, 제가 주간을 맡아 대학신문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어서문학과와 김현균 교수님께서 부주간직을 맡고 계시고, 자문위원으로는 종교학과와 윤원철 교수님, 정치학과와 유홍립 교수님, 미술대학의 심철웅 교수님, 법과대학의 김도균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신문」 제작과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있는 세 명의 간사, 스물여덟 명의 학생기자, 한 분의 정규직원과 한 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신문」은 대학·교수·학생이라는 세 주체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독자의 부류를 나누어보면 교수·학생·교직원·동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fact)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균형(balance), 즉 교수·학생·교직원·동문 등 전체 구성원의 눈으로 볼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학생기자들도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매사에 신중하고 균형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학신문」은 대학본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신문사의 경우는 신문사 자체의 광고 수입도 있지만 재정적으로 대학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작 진행은 100% 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문제도 없지 않았습다. 다시 말해, 학생 측에서는 자신들이 만드는 신문이니까 편집권의 독립성을 달라는 것이었고, 학교 측에서는 총장이 발행인이고 학교의 재정적 지원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니까 학교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가 학생들을 신뢰하고 학생들도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현명하게 조화를 이루어 「대학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주간 양승목 교수

기사마다 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있는지요?

독자들이 우선 온라인상에서 ‘독자 투고’ 혹은 ‘「대학신문」을 읽고’ 등의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편으로 대학신문사로 직접 의견을 전해오기도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월요일마다 편집회의를 열어서 전체 기자와 자문위원 교수들이 모여 신문의 모든 지면을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신문」은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같이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 매체에 대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오늘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종이 신문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신문」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고민이 큼니다. 현재 「대학신문」은 온라인 독자를 위해서 온라인 신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기사를 올리는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 신문은 아닙니다. 종이 신문은 학생들이 기사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간사들과 교수들이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지만,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신문에서는 매번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토 없이 기사를 실는 경우에는 부정확한 기사가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신문이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 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아직은 온라인 신문을 실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차후에는 온라인 신문을 좀더 자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학 중 종이 신문이 발행되지 않은 기간에는 온라인 신문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는 국제화에 발맞추어 영어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히 번역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학신문」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죠. IMF 이전에는 광고 수입만으로도 대학신문사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고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 수입은 전체 예산의 1/3 정도 수준입니다. 광고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많았던 기업들의 공개채용 광고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수시모집 등의 코너로 바뀌어 거의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신문」의 위축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학신문」이 한 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신문」도 그렇습니다만, 민주화와 정보화로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대학 내 신문들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대학신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학생기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균형 있게 기사를 쓰려고 노력한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총학생회가 2005년 3~4월 등록금 반환투쟁을 하면서 본부를 점거하고 그럴 때, 「대학신문」은 대다수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총학생회의 폭력적 투쟁을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대학신문」이 옛날에는 운동권 위주로 편향적이었는데 이젠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런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이 신문이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고민이 큼니다.

「대학신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고 바라시는지요?

인터넷이 지배적인 시대 이전에는 「대학신문」이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과거의 독재정권 시대에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바깥 사회에서도 「대학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리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신문」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독자들이 「대학신문」 기사라면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심점이자 여론의 광장이 되는 그런 매체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학신문」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여기에는 학생기자들의 희생이 큼니다. 사실 「대학신문」은 학생기자들의 헌신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요즘 학생들이 점점 학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취업 걱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헌신적인 그런 학생기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신문」의 전통을 지키고 서울대의 대표 매체로서 위상을 꾸러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여러 면에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원 중심, 연구 중심'을 강조하는데,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학부생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외국에 나갔다 오면 느끼는 건데, 외국의 좋은 대학일수록 학부 학생들한테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의 관심은 상당수가 대학원에 가 있어요. 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주력하다보니 학부 강의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의도 어떻게 보면 스킬(skill)인데, 선생님들이 주로 리서치에만 관심 있다 보니까 강의 스킬 개발에는 관심이 덜 가거든요. 현재 총장님도 학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교수들이나 학교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런 스킬도 배워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중심적인 기관이 사실 CTL(교수학습개발센터)이잖아요. CTL이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해야 할 부문이 많고 또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강의평가를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고 공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점점 강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게 되겠죠. 교수님들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도 그 평가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CTL을 찾아오셔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며 자문을 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웃음) ☞

인터뷰 박은미(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김혜영(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Learning지원부 연구원)